이슬람文庫 15

한국 이슬람교 중앙연합회

신앙에의 길

THE ROAD OF FAITH

부록 : 이슬람의 유일성

SCIENTIFIC RESEARCH HOUSE

KUWAIT

1400 A.H.
1980 A.C.

SCIENTIFIC RESEARCH HOUSE

KUWAIT Fahed Salem Street
P.O. Box 2857 Tel: 414220

The Series No. 15 of Islamic Literature

THE ROAD OF FAITH

APPENDIX: ISLAM, THE UNIQUE

With the Compliments of Sheikh Umar A. Kamel of Jeddah, Saudi Arabia. (본 서는 사우디 아라비아 쉐이크 우마르 A. 카멜씨의 헌금으로 출판된 것임)

Translated & Compiled By the Missionary Department of Korea Muslim Federation

신앙(信仰)에의 길

〈I〉

인간은 누구나 인생과 우주와 인종(人種)과 전생(前生)과 내세(來世)의 삶에 대한 자기나름데로의 개념을 갖기 마련이다. 오늘날 인간이라는 개념들은 근본적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으며 인간자신의 새로운 재건을 위한 또 다른 개념들로 대치되고 있는 것이다. 인간이 지니고 있는 관념적 능력은 바로 오성(悟性)과 자기집중의 원천인 것이다. 인간은 자신의 삶에 대해 갖는 관념에 따라 인생을 사는 태도를 형성하는 것이다. 가령 예를 들어 그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 갖고 있는 관념들은 그 사람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결정지우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미워하는 자나 알지 못하는 자에게는 사랑하는 자에게 베푸는 태도와는 전혀 다른 태도로 대하기 마련인 것이다. 따라서 인간의 형태(行態)라는 것은 그 자신이 인간에 대해 갖고있는 관념에 좌우되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인간은 자신이 지니고 있는 관념이나 개념을 변화시키므로 열등한 행위를 우월한 행위로 전환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쿠란은 다음과 같이 계시하고 있는 것이다.

「인간들이 그들 스스로의 마음 가짐을 바꾸지 않는 한 알라께서는 인간이 처한 여러 조건들을 변경시키지 않으시니라.」

따라서 참다운 「오성(悟性)」의 길로 이르는 유일한 방법은 인생에 대한 옳은 이해를 갖는 것이다. 생에 대한 이해

는 우주와 인간과 내세와 전생에 대한 이해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라 하는 것은 이 우주와 인간과 전생과 내세의 배후에 숨은 완벽한 의미를 파악하지 않고는 이해할 수 없는 속성의 것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것은 우리가 인생에 대한 우리들 스스로의 관념을 형성시켜 나가는 기본적인 요소인 것이다. 이와같이 인생과 우주만상에 대한 전체적인 관념이 형성하게 되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 나가는데 있어서 발생되는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점들을 쉽게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사실 이러한 문제점들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마음의 평화를 찾고 내적인 영혼의 승화를 이루기란 매우 힘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우주와 인간과 인생 자체에 대한 밝은 이해를 갖지 않은 한 이와 같은 알맞는 해결책을 얻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생에 있어서 발전을 희망하고 삶의 개조(改造)를 바라는 자들은 「신앙」이라고 하는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이다.

〈II〉

이슬람은 우리 인간들에게 이러한 믿음(信仰)을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항상 변하지 않는 성품과 확신에 찬 마음의 상태, 그리고 평정(平靜)된 영혼의 안정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준다. 바로 이러한 믿음이라는 행위는 이슬람을 자신의 종교로서 선택할 때, 마음속으로 부터 발생한다. 그러므로 이슬람은 신앙이라는 하나의 기초(基礎) 위에 서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이 우주와 인간과 인생의 배후에는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알라(하느님)가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 행위 위에 이슬람은 그 기초를 두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슬람은 믿는 자들은 알라, 하느님께서는 처음도 끝도 없는 영원불멸의 실체(實体)이며 이 세상 만물이 그분께 의지한다는 것을 굳게 믿는 것이다.

사람들은 이 세상만물이 그 스스로 창조 되었다고 믿지 않을 것이다. 무엇이 만들어지기 전에 반드시 그것을 만든 창조자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창조된 것들은 유한(有限)하고 불완전하며 무기력(無氣力)한 동시에 항상 누군가로 부터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가령 인간의 경우를 예들어 보자. 인간 역시 계속 성장하다가 어느 시점에 들어서서 정지 상태에 빠지는 유한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생활 또한 유한하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란 매우 개체적인 것이며 우리의 감각과 사고에 의해서만 인식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우주 역시 유한한 것이다. 하늘에 총총히 빛나는 별들이 아무리 무한정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한계는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과 우주와 우리의 삶은 명백히 유한한 것이다.

우리가 이러한 유한한 요소들을 관찰해보면 이들은 결코 영원해 질 수 없으며 어떤 외부적인 권능(權能)에 의해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권능(權能)이라는 것이 바로 우주와 인간과 우리의 삶을 창조한 것이라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 권능(權能)을 지닌 분은 어떠한 인물인가? 그분 역시 또 다른 권능에 의해 창조되어진 피조물일 수도 있고 스스로 창조되어진 인물일 수도 있으며 이미 내재인(內在因)으로 영원히 존재하시는 인물일 수도 있는 것이다. 여기서 제일 처음에 지적한 피조물로서의 권능적 인물이란 옳지 못한 주장이다. 왜냐하면 만일 그 권능자가 피조물이라면 유한성을 지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둘째로 자기 스스로를 창조했다는 주장 역시 이중적 자기 모순을 지니기 때문에 옳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이 창조주는 하나의 내재인(內在因)으로서 마땅히 존재하시는 영원한 속성의 것이다. 그 분은 바로 지고지존(至高至尊)하신 「알라(Allah)」, 즉 「하느님」인 것이다.

어떤 사람이든 양식이 있는 사람들은 그자신이 불완전하고 무기력하며 다른 어떤 것의 도움을 항상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영원한 창조주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사실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삼라만상(森羅萬象)이 창조주, 즉 하느님의 존재 하심을 나타내 주고 있다. 자연과 인생의 여러 현상들, 그리고 인간의 특성들은 바로 지고지존하신 알라의 실존(實存)하심을 나타내 보이는 결정적 증거들인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슬람의 성서(聖書) 「쿠란」은 하느님의 계시를 통해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인생의 여러 현상을 관찰하도록 권유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

면 「쿠란」을 읽으므로서 하느님의 존재하심을 증명하는 여러 증거들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다. 「쿠란」의 여러장들은 이러한 하느님의 존재에 대한 사항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알오무란(Al Omran)」 장에는 다음과 같은 알라의 계시가 있다.

"천지(天地)를 창조하시고 낮과 밤을 구별해 주신 것이야말로 하느님께서 이성적(理性的)인 자들(인간들)을 위해 베푸신 기적이니라."

그리고 「알 룸(Al Rūm)」 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계시하고 있다.

"천지(天地)의 창조와 너희들의 언어와 피부색을 구별지워 주신 것은 알라께서 이루어 놓은 여러 기적중의 하나이니라."

또한 「알 가시아(Al Ghashia)」 장에서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시다.

"그네들은 어떻게 낙타가 만들어졌으며, 어떻게 하늘이 그리 높으며, 어떻게 산(山)들이 형성됐으며 또한 "어찌하여 이 대지(大地)가 이렇게 고른가를 알지 못하는가?"

그리고 「알 타—릭(Al Tāarik)」 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인간들은 그들이 태어난 경로를 알아야 할지니, 그들은 허리와 가슴 사이에서 생기는 액체의 흐름으로 부터 창조되었느니라."

또한 「알 바카라(Al-Baqqara)」의 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계시하고 있다.

"천지창조(天地創造)와 밤과 낮의 구별, 대양(大洋)을 항

해하여 인간들을 이롭게 해주는 선박들, 이미 황폐 해졌던 대지(大地)에 하늘로 부터 비를 뿌려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활기있게 만들며 바람을 일으키는 동시에 하늘과 땅사이에 방황하는 구름을 만드시는 것, 이 모든 것은 깨닫는 자들을 위해 하느님께서 베푸신 기적들일지니라."

이밖에도 쿠란의 많은 귀절들은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우리들 주변의 많은 것을 관찰하여 하느님이 존재하심을 깨닫게 하고 드디어는 하느님, 「알라」에 대한 우리들의 믿음을 보다 강하고 완벽하게 해주는 것이다.

그렇다. 하느님이 존재하심을 믿는 행위는 인간 본유(本有)의 특질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본유적인 믿음은 그냥 방치해 둘 경우 무의식적으로 오도(誤導)된 길로 빠져 들어가기 쉬운 것이다. 이러한 인간의 무의식적 성향(無意識的性向)은 믿음의 대상들을 그릇된 상상으로 채색시켜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위장시킬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럴 경우 인간들은 쉽게 현혹과 불신(不信)속으로 빠져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우상을 숭배하고 미신에 탐익하는 행위들은 바로 이러한 무의식적 경향의 비극적인 결과들인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슬람은 무의식적인 믿음의 상태를 참된 믿음에로 이끌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이슬람은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신성(神性)에 어긋나는 묘사를 하는 것을 금하며 하느님을 하나의 물질적 대상으로 변신 시킨다든지 아니면 불신(不信)과 다신주의(多神主義) 혹은 참된 신앙이 거부하는 기만과 미신으로 이끄는 모든 우상숭배를 금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슬람은 이성(理性)과 양심을 마음의 기준으로 삼게하여 모든 무슬림(信者)로 하여금 우상숭배를

금하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믿음에의 확신을 갖도록 장려하는 것이다. 즉 이슬람에서는 모든 무의식적 행위를 이성의 단계로 끌어 올리고 이러한 심적 차원(心的次元)에서 믿음의 행위를 지속할 것을 권장하는 것이다. 앞에서 인용했듯이 알라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낮과 밤을 구분하신 것은 알라께서 이성적인 자들을 위하여 베푸신 기적이니라"하셨다. 따라서 무슬림들은 이성을 최후의 심판관으로 삼아서 끊임없이 사고하고 연구하며 심사숙고하는 신앙의 단계에 이르러야 하는 것이다.

성「쿠란」은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자연의 법칙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바탕으로 하여 올바른 믿음의 길로 나가야 한다는 것을 수백번씩이나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은 인간들에게 이성의 힘을 사용하여 보다 신중하게 사고하고 명상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할때 인간들은 자신의 믿음에 대한 강한 확신과 증거를 가지게 되며 그들의 조상들이 아무런 사려(思慮)나 검토없이 저질렀던 많은 오류와 과오를 피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슬람이 바라는 이상적인 믿음의 형태인 것이다. 이슬람은 결코 맹목적이고 무기력한 믿음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슬람은 스스로 관찰하고 사색하며 명상에 젖어 이성의 작용을 거친 계몽되고 확신된 신앙을 요청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이슬람은 모든 무슬림들이 속깊은 상념에 젖은 후 "알라는 위대하시다"라는 충분한 믿음을 자발적으로 갖게 되는 것을 바라는 것이다.

〈Ⅲ〉

인간이 지존지고하신 알라를 정신적으로 믿어야 한다는 의무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이성과 지능의 한계 때문에 감각과 오성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 이상의 것을 인식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은 하느님 자신을 파악하거나 하느님의 실체(實体)를 인식할 수 없는 것이다. 분명히 하느님은 이 우주와 인간과 삶 자체를 초월해 있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들은 다음과 같은 의문점을 갖게 될 것이다. 즉 "하느님의 실체(實体)를 우리의 이성으로 인식할 수도 없는데 어떻게 확신을 갖고 하느님을 믿을 수 있겠는가?" 하는 질문을 가질 것이다. 그 답변은 매우 간단하다. 왜냐하면 여기서의 믿음이란 우주, 인간, 인생과 같은 하느님의 피조물들의 실재함을 통하여 증명 되어지는 바로 그 하느님의 실존(實在)하심을 믿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간의 하느님에 대한 믿음은 바로 심성(心性)의 능력내에서 체득한 확신 위에서 생겨 날 수 있는 것이다. 사실 하느님 자신(Divine Self)은 이 우주와 인간, 그리고 인간의 지능을 초월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느님의 권능이 얼마나 크며 하느님의 정체가 무엇인가를 파악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인간의 지능적 한계는 하느님에 대한 주저와 회의를 유발한다기 보다는 오히려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강화시켜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느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마음속 깊은 곳으로 부터 발산되기 때문에 하느님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완벽한 것이다. 동시에 하느님의 존재에 대한 우리의 감정 역시 마음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하느님의 실존(實在)에 대한 우리의 감각은 매우 확실한 것이

되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우리들에게 하느님이 내려주신 모든 계시들에 대한 완전한 실현과 적극적 감정을 갖도록 해주는 것이다. 반대로 이것은 하느님에 대한 우리의 강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하느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없으며 오직 초월자(超越者)로서의 하느님의 말씀에 승복하는 길 밖에 없는 것이다. 진정 하느님의 진리와 그 실현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결코 포착할 수 없는 무제한하며 끝없는 것이다.

〈IV〉

하느님의 사도(예언자)들에 대한 필요성 여부를 다룸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첫째, 인간이 지고지존하신 하느님의 피조물이며, 둘째로 인간은 본유적으로 종교라는 믿음에의 품성을 지니고 있는 동시에 세번째로 인간은 그의 감정속에서 그의 창조주를 성화(聖化)시켜 거룩한 분으로서 숭배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바로 인간과 그의 조물주((造物主)와의 관계를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만일 이러한 관계가 아무런 결속(結束) 없이 그냥 방치된다면 아마도 하느님이외의 다른 잡신(雜神) 을 믿게되는 비극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인간과 하느님간의 관계는 보다 적절히 결속되어져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속은 결코 유한하고 무기력한 인간에 의해 강화될 수는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느님의 실체를 파악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하느님과 인간 자체의 관계를 구성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와같은 인간과 하느님간의 관계를 구성하고 보다 결속을 강화시키는 동시에 바른 종교를 인간들에게 가르치기 위하여 사도(예언자)를 이 지상(地上)에 보내셨던 것이다.

사람들이 하느님의 예언자들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또 다른 증거는 자신의 본능적 욕망과 육체적 욕구 그리고 일시적인 만족을 채우려는 인간의 원초적 자세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만일 이러한 만족이 그 어떠한 질서도 없이 성취되어 진다면 인간은 궁극적으로 그릇된 만족을 채우고 급기야는 하나의 재앙속에 빠져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본능적인 활동을 규제하여 질서를 줄 수 있는 하

나의 체계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질서나 체계 역시 인간 자신에 의해 개발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신들의 본능을 환경과 조건에 따라 각기 일방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인 것이다. 아무런 통일성도 없이 인간이 이 모든 것을 개발하도록 방치하여 둔다면 이것 역시 인간을 하나의 파국(破局)으로 몰아넣게 하는 것이 될것이다. 그러므로 이와같은 질서와 체계는 바로 전지전능하신 알라로 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V〉

또한 성 쿠란이 알라로 부터 계시되어 졌다는 증거 역시 존재하고 있다. 성 쿠란은 예언자 무함맏(그분에게 하느님의 평화와 축복이 깃드소서)에 의해 전달되어진 아랍어로 쓰여진 성전(聖典)이다. 우리들은 쿠란의 출현에 대해 세가지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첫째는 아랍 사람들에 의해 쓰여졌거나, 둘째로는 예언자 무함맏에 의해 쓰여 졌거나 아니면 제번째로 알라 그분께서 부터 계시되어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는 것이다. 쿠란은 아랍어의 독특한 필체로 쓰여졌기 때문에 위에 적은 세가지의 가능성을 제외하고는 다른 이설(異說)이 있을 수 없다.

첫째 아랍사람들에 의해 쓰여졌다는 추정은 다분히 모순이다. 왜냐하면 다음과 같은 쿠란의 귀절들이 이를 잘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랍 사람들에게 말할지니, 쿠란에 있는 문장과 동일하게 10개의 귀절만이라도 만들어 보라고……."

"아랍 사람들에게 말할지니, 쿠란의 한귀절과 대동할 수 있는 아랍어 문장을 한 귀절만이라도 만들어 보라고……."

이러한 쿠란의 귀절에 따라 많은 아랍의 학자들, 특히 문학자들은 쿠란의 귀절과 같이 완벽한 문장을 만들어 보려고 숱하게 노력했으나 실패하고 말았던 것이다. 따라서 이점은 아랍 사람들이 쿠란을 짓지 않았다는 사실을 명백히 밝혀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쿠란은 「무함맏」으로 부터 나온 것일까? 이것 역시 옳지 못한 추측인 것이다. 「무함맏」은 인간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도 아랍사회와 아랍민족에 소속된 평범한 아랍인인 것이다. 따라서 아무리 「무함맏」이

천재라 할지라도 그의 동료 아랍인들이 실패했던 쿠란 모조판 제작을, 「무함맏」인들 해낼 수 있는 이유는 하등에 없는 것이다. 예언자 「무함맏」은 오직 알라, 하느님께서 계시내린 것을 사실 그대로 전달한 것 밖에 없으며 쿠란의 귀절과 관련하여 자신의 의견을 펼때에는 오늘날 「하디쓰」(사도 무함맏의 言行錄)에 있는 것처럼 예언자 자신의 스타일을 이용했던 것 뿐인 것이다. 따라서 쿠란의 귀절과 예언자의 가르침, 즉 하디쓰는 하등에 유사성이 없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사실은 쿠란이 결코 무함맏 자신에 의해 쓰여지거나 말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입증하는 것이다. 더우기 당시의 아랍어에 정통하고 아랍어의 문체(文体)에 능숙했던 아랍어 학자들도 쿠란이 결코 무함맏에 의해 쓰여졌다거나 무함맏의 문체와 유사하지 않다는 것을 학문적으로 잘 밝혀주고 있는 것이다. 이들 학자들은 무함맏이 쿠란의 내용들을 지브리엘이라는 천사로 부터 전수 받았다고 주장할 따름인 것이다. 그래서 성 쿠란에는 다음과 같은 계시가 수록되어 있는 것이다.

"우리들은 저들이 쿠란이 인간에 의해 가르쳐질 것이라는 바를 알고 있나니. 쿠란의 말씀이 명백히 아랍어 일지라도 그것을 전하는 자의 언어는 아랍어가 아닐지니라". 」

이제 쿠란이 아랍인들이나 무함맏에 의해 지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입증 되었다. 쿠란은 분명히 지고지존하신 알라로 부터 계시내려진 것으로 이는 예언자 무함맏의 기적을 의미하는 것이다.

무함맏(그분께 알라의 축복과 평화가 깃드소서)은 바로 하느님의 말씀과 그분의 율법을 담은 쿠란이라는 성서를 이

지상에 가져오신 예언자인 것이다. 무함맏은 하느님의 율법들을 이 지상에 최후로 가져오신 알라의 사도이신 것이다. 이점은 바로 무함맏이 예언자됨을 증명하는 또 다른 논리적 자료인 것이다. 여기에 모든 무슬림들이 알라와 그분의 예언자 무함맏의 메시지를 믿고 성 쿠란을 하느님의 말씀으로 승복하여 따르는 소이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하느님, 알라에 대한 믿음은 이성과 확신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며 이것을 바탕으로 하여 하느님의 말씀들과 신성(神性)에 따르게 되는 것이다. 우리들이 알라를 믿고 그분의 신성(神性)을 믿는 한에 있어서 우리들은 그분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거나 아니면 이해할 수 없더라도, 믿고 따라야 하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은 내세(來世)에서의 재생(再生)과 부활 (復活), 천국(天國)과 지옥의 존재함, 신앙의 책임과 의무, 천사와 악마 등과 같은 쿠란과 하디쓰에 언급되어진 사실들을 믿어야 하는 것이다. 비록 어떤 이의 믿음이 다른 사람으로 부터 전해 들어서 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그가 믿는 한, 그 믿음은 그의 마음속으로 이 모든 것이 증명됐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무슬림들은 자신의 이성을 통해 확신이 선 것이나 쿠란과 하디쓰에 쓰여진 모든 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쿠란과 하디쓰가 옳다고 인정하지 않는 것은 무슬림들이 행해서는 안되는 금기(禁忌) 사항인 것이다. 따라서 무슬림들은 자신의 이성으로 확신이 섰다 하드라도 그것을 쿠란과 하디쓰의 말씀과 비교해 본 후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것이다.

〈Ⅵ〉

무슬림들은 또한 현세와 내세를 판가름하는 최후의 심판일을 믿는다. 사람들은 현세에서 행한 모든 행위에 대해 최후의 심판을 거쳐 내세에서 그 스스로가 책임을 지는 것이다. 즉 내세에서의 부활이 현세에 있어서의 행위와 믿음의 강도(强度)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무슬림들은 믿는 것이다. 따라서 무슬림들은 인생을 살아나가는데 있어서 알라께서 정해 놓은 율법(律法)과 명령들을 준수해야 하며 최후의 심판날에 가서 알라께서 가신이 현세에서 행한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다.

〈Ⅶ〉

이제 우리들은 맨 처음 언급했던 이 우주와 인간과 인생의 배후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 어느정도 명료한 윤곽을 갖게 되었을 것이다. 즉 우리의 이성에 의한 추리(推理)는 전생(前生)과 내세(來世)는 어떠한 것이며 우리의 현세는 이 두 세계와 어떠한 연관을 갖고 있는 가 하는 것을 어느 정도 해명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들은 이러한 모든 것이 이슬람이란 종교를 통해서 해명될 수 있었다는 것을 깨닫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해결책을 찾았을 때 우리들은 인생에 대한 보다 명확한 관념을 구축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우리 인생이 새로운 르네쌍스(재생)에의 길로 치닫을 수 있도록 해주는 모든 원칙들의 기초를 이루는 것이다. 문화가 싹트고 여러 법률과 심지어 국가자체가 성립될 수 있는 근거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이슬람이라고 하는 신앙의 출발점이며 방법인 것이다.

쿠란에 계시되길;

"오 믿는 자들이여! 알라와 그의 예언자와 그의 예언자에게 계시되어진 성서들을 믿고 또한 예언자 무함맏 이전에 계시 되었던 모든 성서들을 믿을 지어다. 알라와 그의 천사들과 성서들과 예언자들과 최후의 심판일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가혹한 형벌이 내릴 지어다."

하셨다.

그리고 앞에서 입증 되었듯이 무슬림의 알라에 대한 믿음은 필수적인 것이다. 따라서 무슬림들은 이슬람의 법율체계인 「샤리아(Shari'a)」를 준수해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샤리아」는 성 쿠란과 하디쓰의 말씀들로 구성되어져 있기 때문이다. 만일 무슬림이 이를 준수치 않을 경우, 그는 불신자(不信者)가 되는 것이다. 때문에 그것이 종교의식을 다루는 것이든, 대인관계나 음식물이나 처벌을 다루는 것이든 간에 「샤리아」의 일부나 전부를 거부하는 것은 바로 믿지 않는 자의 행동인 것이다. 그래서 쿠란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지킬 것을 명하고 있는 것이다.

"알라께서는 장사를 허용하시되 이자놀이를 금하셨느니라."

"남녀를 막론하고 도적질 한 자들은 그들의 손을 절단해야 하느니라."

"너희들은 죽은 동물의 고기나, 피 그리고 돼지고기와 알라의 이름 이외에 다른 이름으로 잡은 고기는 무엇이나 먹어서는 아니 되느리라."

이슬람의 법률체계를 믿는 다는 것은 항상 이성의 작용과 일치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지고지존하신 알라는 우리 인간보다 월등히 우월하시고 사도 무함맏 역시 완벽한 인간의 하나였기 때문에 알라의 말씀과 예언자 무함맏의 언행을 준수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쿠란에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너의 하느님, 주 알라의 뜻하심으로 저들은 네가 그들의 논쟁에 심판관이 되어 모든 일을 원만히 해결해서야 너를 믿을 지니. 네가 심판을 행한후에 저들은 아무런 근심도 느끼지 않고 너에게 완전히 순종할 지니라."

부록 : 이슬람의 유일성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알라의 이름으로,

모든 찬미는 알라께 있을지니 사도 무함맏에게 당신의 축복과 구원을 내려 주십소서.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생애에 있어서 본질적인 것들이 무엇인가를 찾아내기 위해 숱한 사색에 잠긴다. 이러한 사색에 잠기므로서 그는 인생의 적절한 항로를 모색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들은 어떤 개념에 대한 옳고 그름을 결정할 때 결코 다른 사람이 그러하니까 나도 그런 태도를 취한 다는 소극적 삶의 방식을 피해야 하는 것이다.

이 때 우리들은 스스로 자문(自問)해 보아야 하는 것이다. 즉 "다른 사람들이 취한 태도는 옳은 것이었던가?", "내 이웃들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나 역시 높은 빌딩에서 뛰어 내리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인가?"하는 따위의 질문을 자기 자신에게 던져 보아야 하는 것이다. 물론 자신의 답변 역시 "아니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와같은 자문과정은 감정적인 요소나 다른 사람으로 부터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신이 행동하는 바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해 주는 것이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문제중의 하나는 아마도 종교와 신앙일 것이다. 이 종교와 신앙이란 문제에 대해 보다 객관적일 수 있기 위해 우리들은 모든 여러가지의 가능성, 즉 다음과 같은 가능성들을 연구, 검토해야 할것이다.

1) 이 세상은 우연의 일치로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을까?

2) 한 분 이상의 창조주가 존재한다는 것은 가능한가?

3) 이 세상은 그 스스로 독자적으로 창조될 수 있었을까?

4) 하느님께서 자식을 가진다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5) 오직 한분만의 창조주가 계시다면 그 증거는 무엇인가?

무엇보다 먼저 우리들은 "우연의 일치(偶然의 一致: Coincidence)"라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내려야 할 것이다. "우연의 일치"란 예정되거나 계획되지 않은 체 우연히 발생하는 행위의 일체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것은 어떠한 일정한 규칙이나 규제의 지배를 받지 않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

만일 어떤 사람이 버스정류장에 있다가 아침 8시경에 그의 친구가 차를 타고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고 가정하자. 이때 이 둘은 결코 8시라는 정해진 시간에 서로 보기로 약속하거나 계획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것은 서로가 알지 못한 체 우연히 발생했던 것이다.

이제 이러한 "우연"이라는 개념을 이 세상 만물에 적용하여 보자. 정말 이 세상이 우연의 일치로 생겨났다고 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아무런 질서나 규칙없이 마음데로 움직이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가? 태양이 서쪽이나 남쪽에서 솟아오른 적이 있었던가? 그리고 달이 지구에 대한 공전(公轉)을 멈추었던 적이 있었든가? 북극이 남극이 되고 남극이 북극이 되었

던 사례가 있었던가? 그리고 사람이 바다밑에 살고 물고기가 지상위에 사는 그런 세상의 도래가 가능할까? 이 모든 것은 사실 일어날 수 없는 것들이다. 만물은 그 스스로가 물리칠 수 없는 질서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즉 만물은 각기의 기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우연」이란 반복하여 발생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들은 반복이라는 것이 이러한 여러가지 규칙을 이루는 특성이라는 점을 알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이 세상은 결코 우연의 일치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무한한 권능(權能)을 가진 계획자로 부터 창조되어 진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권능(權能)"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제 우리들은 이 "권능"이란 개념을 정의내리기로 해보자.

1) 이 세상이 스스로 창조될 수 있다는 것은 가능한 얘기일까? 우리가 "세상"이니 "자연(Nature)"이니 하는 것을 정의내리기전에 "자연"이라는 분리되어진 것이 따로 존재하고 있는 것일까? 자연은 나와 당신과 우리들 모두를 포함한 세상만물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들은자연의 일부인 것이다. 때문에 자연이 그 스스로 생성되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인간이 인간 스스로를 창조하며 산과 바다 역시 그들 스스로를 생성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다.

만약 어떤 나무 하나가 스스로 베어져서 책상을 만들고 의자를 만드는 것을 보았다고 주장한다면 아마 어느 누구도 이를 믿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어떤 피조물(被造物)이 있으면 반드시 거기에는 그것을 만든 자가 있기 때문인

것이다. 이것은 마치 행위자가 없는 행동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 논리인 것이다. 따라서 이 세상이 스스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수락할 수 없는 것이다. 이제 또 다른 문제점을 논의키로 해보자.

2) 각기 기능을 달리하는 하느님(神)이 한분 이상 존재한다는 것은 가능한 것일까? 예를 들어 악(惡)을 주관하는 하느님이 따로 있고 선(善)을 주관하는 하느님 역시 따로 존재한다고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동물을 주관하는 하느님과 인간을 주재(主宰)하는 하느님, 대지(大地)를 주관하는 하느님과 바다(海洋)을 주재하는 하느님이 각각 따로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만일 한분 이상의 하느님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면 거기에는 여러 하느님(諸神)들간에 승리를 위한 투쟁이 그칠 날이 없을 것이다. 가령 악함을 주재하는 신(神)은 이 세상에 사악(邪惡)함이 풍미토록 노력할 것인 반면에 선(善)을 주관하는 신은 그와 역행하는 노력을 할것이 분명한 것이다. 따라서 이 두 신(神)간에는 서로 불화가 생길 것이고 급기야는 이 세상에 혼돈을 가져오게 할것이다. 만일 어떤 神이 태양을 서쪽에서 뜨게하고 동시에 다른 神이 태양을 동쪽에서 뜨게 하거나, 아니면 각기 밤과 낮을 동시에 가져 온다면 이 세상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혼란속에 빠질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는 결코 발생할 수 없는 것이다.

아주 쉬운 예를 들어보자 : 한 명 이상의 선장이 있는 선박이나 둘 이상의 통치자가 있는 나라가 있을 수 있을까? 왜 항상 최고의 지도자는 한 사람 뿐일까? 왜냐하면 한명

이상의 지도자가 존재한다면 만사가 잘못되기 때문인 것이다. 따라서 이 세상을 주재하고 주관하시는 하느님은 오직 한분밖에 없는 것이다.

3) 하느님이 한분밖에 안계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은 무엇인가?

그에 관해서는 많은 증거들이 있다. 우선 그 한가지로는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만일 두 분 이상의 하느님이 존재한다면 이 세상은 온통 혼란투성이 일텐데 아직도 질서롭다는 점이다. 그리고 또 다른 증거로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물이나 개념들이 서로간에 유사성을 지녔다는데서 창조주가 한 분 뿐이라는 것을 유추해 낼 수 있는 것이다. 즉 아시아인이나 구라파인이나 그 기본적인 모습에 있어서는 동일한 것이다. 이들 모두가 동일한 소화기관, 신경계통, 두다리, 양 손, 머리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백인종과 황인종이 각가 다른 창조주에 의해 생성됐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동물과 식물들 역시 동일한 규칙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은 결국 하느님이 한분밖에 안계시다는 것을 입증해 주고 있는 것이다.

또 다른 평범한 증거가 있다. 그것은 우리가 의사를 소통하는 언어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만일 중국인 어린이 한명을 영어만을 사용하는 런던에 어렸을 적부터 데려다 놓아보자. 그 어린이는 어떤 말을 사용하겠는가? 말할 것도 없이 영어를 사용할 것이다. 왜냐하면 듣는 행위는 말하는 행위의 기초가 되기 때문인 것이다. 흔히 인간은 먼저 듣는 것을 배우고 그 다음에 말하는 것을 배운다고 한다.

바로 이러한 이유때문에 귀먹어리가 벙어리신세를 면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인간의 최초 시대로 돌아가 보자. 최초의 인간 「아담」이 어느 누구로 부터 한마디도 들어보지 못한체 말할 수 있게 되었는가? 그에 대한 대답은 「쿠란」에 쓰여 있듯이 하느님께서 말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인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최초의 인간 「아담」에게 말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고 「아담」은 다시 그 후손들에게 전승해 주어 오늘날 우리에게 까지 이르렀던 것이다.

"하느님이 존재한다"는 또 다른 증거를 살펴보자. 그것은 "하느님 (God)"이란 용어가 모든 언어에 쓰여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모든 언어에 있어서 "명칭"이라는 것은 실재(實在)하는 사물에만 부쳐지는 법이다. 예를 들면 "텔레비죤"은 50년전만 하드라도 존재하지 않았고 따라서 "텔레비죤"이란 명칭도 알려지지 않았었다. 그러나 "하느님"이란 용어는 그 분의 실재(實在)함을 보거나 체험하지 않고도 모든 언어에 그 시초부터 존재해 왔었던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결국 전 세계가 하느님이 존재하심을 전적으로 믿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의 최초의 조상인 「아담」은 「하느님」을 보셨고 하나님의 명칭이 그를 통해 숱한 세대를 거쳐 우리에게 전해져 왔었다. 그러나 우리들이 「아담」이후 여러 자손으로 번영하여 나누어 져 왔기 때문에 「하느님」이란 명칭이 여러가지 언어속에 각기 다른 명칭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하느님은 우리의 마음속에도 존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필요할 때면 곧잘 그분께 의지하려 든다. 무신론자

(無信論者)이든 공산주의자든 누구든지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면 "오 하느님(O, God)"이라고 말한다. 어떻게 해서 이러한 말이 모든 인간들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것인가?

이러한 증거들을 근거로 하여 우리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재하시는 한 분뿐인 하느님이 존재하심을 믿고 인정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 분을 볼 수 없다하여 그분이 존재하지 않는다(His Non-Existence)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만일 밖에서 녹크소리가 나면 방에 있는 우리는 누군가가 문밖에 있다는 것을 알 뿐이지, 그가 누구이며 그의 체중이나 키나 피부색갈을 알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라곤 문을 녹크한 자가 밖에 있다는 사실뿐이며 그 밖의 모든 것은 그가 방안으로 들어와 자신을 소개할 때야 비로서 밝혀지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있는 만물은 우리들에게 이 세상을 주재하시는 창조주가 존재하심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바른 종교를 보여주시어 영혼의 방황으로 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는 예언자들을 이 세상에 내려보내신 하느님이 한분 밖에 없다는 사실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다.

سلسلة الرسائل الاسلامية ١٥
اتحاد المسلمين الكوريين

طريق الإيمان

ترجمة وإعداد أحمد مون

دار البحوث العلمية

سلسلة الرسائل الاسلامية ١٥
اتحاد المسلمين الكوريين

طريق الإيمان

ترجمة وإعداد أحمد مون

دار البحوث العلمية